

## 중국어교육의 보조자료 다양화를 위한 모색: 周杰倫의 몇 곡을 중심으로\*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 ◆ 국문초록

본고는 周杰倫 곡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문·문화 교육의 보조자료 다양화에 대중문화 소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중국과 대만의 시험문제 또는 교재 내용으로 사용된 10곡을 각운, 고대 시가 어휘, 문화 관련 어휘의 사용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과 교육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周杰倫 곡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대중문화 소재가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어교육의 보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한 대중문화 소재의 도입에는 향후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분석이 전제된다.

주제어 : 보조자료, 周杰倫 곡, 중국대중문화, 중국어교육, 다양화

### I. 문제의 제기

본고는 대만 가수 周杰倫 곡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문·문화 교육의 보조자료 다양화에 대중문화 소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아래의 가사를 함께 살펴보자.

(1) 『范特西』, 「愛在西元前」(2001)<sup>1)</sup>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① 古巴比倫王頒布了漢摩拉比法典  
刻在黑色的玄武岩 距今已經三千七百多年  
妳在櫥窗前 凝視碑文的字眼  
我卻在旁靜靜欣賞妳那張我深愛的臉
- ② 祭司 神殿 征戰 弓箭 是誰的從前  
喜歡在人潮中妳只屬於我的那畫面  
經過蘇美女神身邊 我以女神之名許願  
思念像底格里斯河般的蔓延
- ③ 當古文明只剩下難解的語言  
傳說就成了永垂不朽的詩篇
- ④ 我給妳的愛寫在西元前 深埋在美索不達米亞平原  
幾十個世紀後出土發現 泥板上的字跡依然清晰可見
- ⑤ 我給妳的愛寫在西元前 深埋在美索不達米亞平原  
用楔形文字刻下了永遠 那已風化千年的誓言  
一切又重演

고대바빌론(古巴比倫), 함무라비법전(漢摩拉比法典), 수메르(蘇美), 티그리스강(底格里斯河), 메소포타미아평원(美索不達米亞平原). 상기 가사는 고대 이라크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반부만 보면 역사를 전면에 내세운 곡이니 흡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위의 가사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인 “我”가 “妳”를 위한 “愛”를 기원한 1700여 년 전에 이미 쐐기문자(楔形文字)로 점토판(泥板)에 새겨 놓았던 것이라고 고백한다. 세계사 시간이나 언급될만한 어휘들이 전면에서 나오지만 정작 그 속에서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름의 역사적 연보를 맞추고 있는 까닭에, 아래의 예처럼, 가수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육적 기능까지 수행한다.

(2) 「國立臺東高中一百學年度第一學期高二體育班歷史科第一次期中考答案卷」<sup>2)</sup>

1) 굵은 각괄호 “『』”는 앨범명을 얇은 각괄호 “「」”는 곡명을 표시한다. 이하 동일하다.

2) 출처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7. 周杰倫의 「愛在西元前」歌詞中有一段是這樣寫的: 「……我給妳的愛寫在西元前, 深埋在美索不達米亞平原, 用楔形文字刻下了永遠, 那已風化千年的誓言, 一切又重演……」, 請問「用楔形文字刻下了永遠」的最有可能是下列哪一個民族?  
 (A)羅馬人 (B)波斯人 (C)埃及人 (D)蘇美人

물론 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양국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와닿는 가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성이라는 막을 거두고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학습한 지식을 응용케 한다는 측면에서 예(1)이 가진 보충자료로서의 가치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예(1) 매 구절의 끝 자인 ‘典’, ‘年’, ‘眼’, ‘臉’, ‘前’, ‘面’, ‘願’, ‘延’, ‘言’, ‘篇’, ‘原’, ‘見’, ‘演’이 모두 ian으로 압운이 되어 있다. ‘願’과 ‘原’은 üan이지만 i와 ü가 평순과 원순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상기 가사는 일관된 압운의 형식을 보여준다. 또한 ④와 ⑤는 반복되는 후렴구로서 곡의 끝까지 총 3번이 반복되는데, ④의 ‘前ián’—‘原üán’—‘現iàn’—‘見iàn’, ⑤의 ‘前ián’—‘原üán’—‘遠üǎn’—‘言ián’—‘演iǎn’이 각각 “平—平—仄—仄”, “平—平—仄—(平)—仄”으로서 동일한 평측의 패턴을 띠는 것도 흥미롭다.

이 같은 초보적 관찰은, 한편으로는 언어적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문학적 측면에서 관련 지식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요소가 숨어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췌기문자(楔形文字)나 점토판(泥板)은 서사방식과 서사도구의 초기 형태라는 점에서 언어 일반의 지식 또는 문화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래의 논의는 교육 자료와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고찰을 어·문·문화로 확대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周杰倫의 곡에 접근할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외국어·문·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음악이 논의될 수는 있어도 음악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식의, 즉 음악 자체가 목적이란 생각은 본고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앞서 밝혀둔다. 아울러, 본고

는 周杰倫 곡에서 보이는 여러 소재들이 어떻게 어·문·문화 교육의 보조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론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내용의 기술도, 어·문·문화 요소와의 연계성 고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며 곡이나 고대 문학 작품 본연의 분석이나 해석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 II. 분석의 자료

周杰倫의 곡 중에서도 본고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총 10곡이다.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sup> 나열 순서는 앨범의 발표연도를 따랐다.

### (3) 분석대상 상세

	곡명	앨범	연도	작사	작곡	편곡
1	蝸牛	FANTASY PLUS EP	2001	周杰倫	周杰倫	周杰倫
2	愛在西元前	范特西	2001	方文山	周杰倫	林邁可
3	上海一九四三	范特西	2001	方文山	周杰倫	林邁可
4	東風破	葉惠美	2003	方文山	周杰倫	林邁可
5	七里香	七里香	2004	方文山	周杰倫	鍾興民
6	髮如雪	11月的蕭邦	2005	方文山	周杰倫	林邁可
7	聽媽媽的話	依然范特西	2006	周杰倫	周杰倫	林邁可
8	菊花臺	依然范特西	2006	方文山	周杰倫	鍾興民
9	青花瓷	我很忙	2007	方文山	周杰倫	鍾興民
10	琴傷	驚嘆號	2011	方文山	周杰倫	黃雨勳

상기 곡을 분석의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모두가 중국 및 대만, 일본 등지의 어문 또는 외국어 교재에 수록되거나 정규교육 과정의 시험 문제 지문으로 사용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상기 곡들이

3) 관련 정보는 『wikiwand』로부터 얻었다.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교육적 측면에서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언론 및 출판사 등의 사이트를 통해 취합된 정보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4)</sup>

(4) 교재 수록 및 문제 출제이력 상세

	곡명	연도	수록 및 출제이력
1	蝸牛	2014	中國小學三年級語文課教材
2	愛在西元前	2011	臺灣高中歷史科考題
3	上海一九四三	2009	臺灣臺北縣中小學韻文讀本補充教材
4	東風破	2007	日本『歌で覚える中国語』50
5	七里香	2007	日本『歌で覚える中国語』47
6	髮如雪	2007	日本『歌で覚える中国語』44
7	聽媽媽的話	2006	臺灣國立臺北教育大學附屬實驗國民小學一年級教材
8	菊花臺	2007	日本『歌で覚える中国語』
9	青花瓷	2009	北京大學/清華大學招生筆試考題
10	琴傷	2012	中國中學生讀本教材

이 같은 점은 외국어문으로서의 중국어문교육에도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을 던진다. 우선, 시중 출판 교재가 아닌 학교 교재의 경우, 중국어문 기초교육의 으뜸으로 여겨져 왔던 고대시가가 어떻게 그 자리의 일부를 대중가요 가사에 양보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시가가 갖고 있는 어문 교육적 가치를 생각할 때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상기 곡이 고대시가를 대체할만한 특징, 예컨대 고대시가가 아니어도 운의 개념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곡의 감흥이 고대어느 시가와 맞닿아 있다거나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고취한다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지켜야 할 유, 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생각은 또한 한국의 중국어문교육으로 그것을 끌어온다면 곡의 어떤 점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끌어낸다.

4) 관련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의 축자적 의미만 알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그렇다. 이들 문제는 텍스트의 이해와 관련한 상·하향식의 접근법과 연결된다. 또한 공통성과 다양성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원어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낯선가? 반대로, 중국의 것인데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아가 실용과 실천의 차원에서, 이 같은 질문들은 어느 수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가? 그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가공되어 제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기 문제들은 우리에게 때론 어·문·문화 각 분야별 관점의 또 때론 어·문·문화 간 통합적 관점의 견지를 요구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周杰倫 곡에 존재하는 어·문·문화별 특징과 그것이 자료로서 교육과 맺는 연계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Ⅲ. 분석과 검토

#### 1. 운(韻)적 측면: 각운을 중심으로

먼저 「上海一九四三」을 살펴보자. 「上海一九四三」은 상기 곡들 중에서, 내용의 사(史)적 고증과 압운이 교재 집필자들의 눈에 띠어 곤곡 「牡丹亭」과 함께 대만의 운문 교재(韻文讀本) 내로 수록된 곡이다.<sup>5)</sup>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래의 예를 보자.

(5) 『范特西』, 「上海一九四三」(2001)

- |  |  |
|--|--|
| ① 泛黃的春聯還殘留在牆上 <sup>ang</sup><br>在我沒回去過的老家米缸 <sup>ang</sup> | 依稀可見幾個字歲歲平安 <sup>an</sup><br>爺爺用楷書寫一個滿 <sup>an</sup>     |
| ② 黃金葛爬滿了雕花的門窗 <sup>uang</sup><br>鋪著檫木板的屋內還瀾漫 <sup>an</sup> | 夕陽斜斜映在斑駁的磚牆 <sup>iang</sup><br>姥姥當年釀的豆瓣醬 <sup>iang</sup> |
| ③ 我對著黑白照片開始想像 <sup>iang</sup>                              | 爸和媽當年的模樣 <sup>iang</sup>                                 |

5) 『蘋果日報』(2009.4.21).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7) 「上海一九四三」과 平仄

- ① 一上(측), 一安(평), 一缸(평), 一滿(측)
- ② 一窗(평), 一牆(평), 一漫(측), 一醬(측)
- ③ 一像(측), 一樣(측), 一娘(평), 一灘(평)
- ④ 一的(측), 一光(평), 一三(평), 一憶(측),  
一上(측), 一慢(측), 一坊(평), 一堂(평), 一傷(평)
- ⑤ 一的(측), 一光(평), 一三(평), 一看(측),  
一段(측), 一霜(평), 一盤(평), 一箱(평), 一瓣(측)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어음의 변화로 인해 고대 시가를 분석할 때의 규칙으로써 평측 개념을 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平과 仄이 각각 음높이 변화의 유무에 따라 평평함과 기복이란 특징으로 규정되고 음길이의 길고 짧음이란 상대적 특징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王力 2002, p. 3) 그것을 정(靜)과 동(動) 또는 이어짐과 끊어짐 등의 이미지로 확대시켜 볼 수도 있으며 이것이 곡의 흐름과도 일정 정도 궤를 같이 함을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1)–(2)]–(3)–[(4)–(5)] 구조를 곡 전체로 확장시킨 뒤 각 구간 경계에 예(7)의 평·측을 대응시켜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上海一九四三」의 平仄 간의 대응

[(1)–(2)]	–(3)–	[(4)–(5)]		[(1)–(2)]	–(3)–	[(4)–(5)]
[(仄)–仄]	–平–	[(平)–仄]		[(仄)–仄]	–平–	[(平)–仄]
1부				2부		

동일한 멜로디가 끝나는 ②의 끝은 仄으로 끝난다. 그리고 후렴구로 이어지는 ③은 平으로 끝난다. 그리고 1부 전체의 마지막은 다시 仄으로 끝난다. 즉 [(1)–(2)]와 [(4)–(5)]를 이어주는 ③은 平으로 끝을 맺고 [(2)]와 [(5)]처럼 구간 반복이나 전체 반복의 종료, 즉 단락을 짓는 부분은 모두 仄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같은 곡의 흐름은 2부에서 더 흥미롭다. 2부는 ①을 제외한 1부의 반복인데 ①이 제외된 결과 ‘[(2)仄]–(3)平–[(4)平–(5)仄]’으로서 이어짐을 알리는 부분(③과 ④)은 모두 平으로, 매듭짓는 부분(②와 ⑤)은 모두 仄으로 끝나고 있다.

그렇다면 랩이 들어가는 곡은 어떻게? 상기 곡 중에서 랩이 주를 이루는 「聽媽媽的話」를 보자. 「上海一九四三」은 가사가 음표와 호흡을 이루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聽媽媽的話」는 일정한 코드 패턴을 배경으로 나름의 리듬에 맞춰 전개하는 화자의 이야기 — 랩 — 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음표와 호흡을 이루는 노래부분(예(9)의 ④)이 세 곳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며 곡의 내용 전개를 구분한다.

(9) 『依然范特西』, 「聽媽媽的話」(2006)

- ① 小朋友<sup>ou</sup> 你是否有很多問號<sup>ao</sup>  
為什麼<sup>e</sup> 別人在那看漫畫<sup>ua</sup> 我卻在學畫畫<sup>ua</sup> 對著鋼琴說話<sup>ua</sup>  
別人在玩遊戲<sup>i</sup> 我卻靠<sup>ao</sup>在牆壁背我的ABC<sup>i</sup>
- ② 我說我要<sup>iao</sup>一台大大的飛機<sup>i</sup> 但卻得到<sup>ao</sup>一台舊舊錄音機<sup>i</sup>  
為什麼要<sup>iao</sup>聽媽媽的話<sup>ua</sup> 長大後你就會<sup>uei</sup>開始懂了這段話<sup>ua</sup>
- ③ 長大後我開始明白<sup>ai</sup>  
為什麼我<sup>uo</sup>跑得比別人快<sup>uai</sup> 飛得比別人高<sup>ao</sup>  
將來大家看的都是<sup>i</sup> 我畫的漫畫<sup>ua</sup> 大家唱的都是<sup>i</sup> 我寫的歌<sup>e</sup>  
媽媽的辛苦<sup>u</sup> 不讓你看見<sup>ian</sup> 溫暖的食譜<sup>u</sup> 在她心裡面<sup>ian</sup>  
有空就多多握握她的手<sup>ou</sup> 把手牽著一起夢遊<sup>ou</sup>
- ④ 聽媽媽的話<sup>ua</sup> 別讓她受傷<sup>ang</sup> 想快快長大<sup>a</sup> 才能保護她<sup>a</sup>  
美麗的白髮<sup>a</sup> 幸福中發芽<sup>ia</sup> 天使的魔法<sup>a</sup> 溫暖中慈祥<sup>iang</sup>
- ⑤ 在你的未來<sup>ai</sup> 音樂是你的王牌<sup>ai</sup> 拿王牌談個戀愛<sup>ai</sup>  
唉!我不想把你教壞<sup>uai</sup> 還是聽媽媽的話吧<sup>a</sup> 晚點再戀愛吧<sup>a</sup>  
我知道你未來的路<sup>u</sup> 但媽比我更清楚<sup>u</sup>
- ⑥ 你會開始學其他同學在書包寫東寫西<sup>i</sup>  
但我建議最好寫媽媽我會用功讀書<sup>u</sup>  
用功讀書<sup>u</sup> 怎麼會從我嘴巴說出<sup>u</sup>  
不想你輸<sup>u</sup> 所以要叫你用功讀書<sup>u</sup>
- ⑦ 媽媽織給你的毛衣<sup>i</sup> 你要好好的收著<sup>e</sup>  
因為母親節到時<sup>i</sup> 我要告訴她我還留著<sup>e</sup>  
對了<sup>e</sup> 我會遇到周潤發<sup>a</sup>  
所以你可以跟同學炫耀<sup>ao</sup> 賭神未來是你爸爸<sup>a</sup>
- ⑧ 我找不到童年寫的情書<sup>u</sup> 你寫完不要送人<sup>en</sup>  
因為過兩天你會在操場上撿到<sup>ao</sup>

- 你會開始喜歡上流行歌<sup>c</sup> 因為張學友開始準備唱吻別<sup>c</sup>  
 ④ 聽媽媽的話<sup>ua</sup> 別讓她受傷<sup>ang</sup> 想快快長大<sup>a</sup> 才能保護她<sup>a</sup>  
 美麗的白髮<sup>a</sup> 幸福中發芽<sup>ia</sup> 天使的魔法<sup>a</sup> 溫暖中慈祥<sup>iang</sup>

예(9)를 보면 a, ai, ao, iao, ua, uai, ang, ian, iang 의 출현빈도가 가장 많으므로 a를 중심으로 한 운의 정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 u, e, en, ie 등도 균대균대 출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볼 때, 예(5)와 같이 뚜렷한 패턴을 띠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예(9)의 형식이 예(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술의 자유성을 띠는 만큼, 운의 전체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대신, 특정 운을 특정 메시지와 연계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a운이 주를 이루는 속에서 u운의 잦은 출현에 주목해보자. 예(9)에서 밑줄이 쳐진 단어들로서 u로 끝나는 자를 모아 보면, 辛苦, 食譜, 的路, 清楚, 讀書, 說出, 你輸이다. 주로 ③, ⑤, ⑥에 집중해 있는데, 이들 모두는 周杰倫의 어머니가 과거 周杰倫에게 했던 말을 직접인용의 형식으로 읊는 ⑤를 전후해서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같은 점을 상기 u로 끝나는 어휘들의 의미와 연계시켜보면 모두가 어머니의 걱정, 보살핌, 잔소리, 조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상위 층차의 메시지, 즉 제목—“聽媽媽的話”—과 직접적으로 호응한다.

周杰倫 곡의 압운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바로 압운이 되는 운이 대체로 제목의 운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愛在西元前」에서는 각 운이 주로 i/üan으로, 「上海一九四三」에서는 (i/u)an(g)으로, 「東風破」에서는 (u)o(u) 또는 e(o 평순)로, 「髮如雪」에서는 (i/ü/u)e(i)로, 「琴傷」에서는 (i/u)an(g)으로 모두가 제목 끝 자의 운과 주요모음 면에서 호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존재하는 차이는 주로 개음이 부가된 형태이거나 「愛在西元前」의 ‘ian—üan’, 「東風破」의 ‘o—e’처럼 기타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평순—원순’의 대립을 보이는 경우이다.

논의를 정리하면, 분석대상에는 첫째, 악곡이 갖는 멜로디의 ‘반복’과 리듬의 ‘반복’에 언어가 가진 운의 ‘반복’이 결합됨으로써 곡의 음악성 제고에 언어 역시 일조를 한다. 둘째, 특정 운의 반복적인 사용이 곡의 메시

지, 즉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부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곡 전체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셋째, 제목과 곡의 운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로부터, 곡 자체가 가진 음악성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음악성을 상당히 많이 운용하고 있다.

## 2. 사(詞)적 측면: 고대 시가와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周杰倫의 곡들은 중국의 고전,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가들과 연계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사가인 方文山 스스로도 자신의 표현양식을 “素顏韻腳詩”라고 규정하며 한어로써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劉炯朗 2011, p. 123).<sup>7)</sup> 이에, 분석대상에는 현대 한어에서는 용례가 적지만, 그 어휘들을 원류적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고전 시가 속에서도 그 출현을 찾을 수 있는 예들이 적지 않다. 아래는 중국 고전문헌 코퍼스인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와 『漢籍電子文獻資料庫』, 『讀古詩詞網』 등을 위주로 예를 검색하고, 온·오프라인 상의 공구서인 『辭源』, 『漢典』 등을 위주로 정의를 검색하면서 고전 시가와 「髮如雪」, 「菊花臺」, 「青花瓷」의 어휘들을 관련지어 살펴본 몇몇 예들이다.

### (10) 先秦兩漢

- ① 伊人: 그/이 사람  
「髮如雪」: 狼牙月 伊人憔悴  
(그믐달 아래 그 사람 초췌해 보여)  
⇒ 『詩經』「秦風·蒹葭」: 所謂伊人, 在水一方  
(그 사람은 물가 한 켠에 있네)
- ② 夜未央: 밤이 다하지 않다  
「菊花臺」: 北風亂 夜未央

7) “素顏”은 일본 한자어(すがお)로서 원래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을 가리키지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소재란 의미로 확대 지칭될 수 있다(劉炯朗 2011, p. 123).

(복풍은 어지러이 불고 밤은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 『詩經』「小雅·庭燎」: 夜如何其? **夜未央**

(밤은 어찌 되었나요? 밤은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③ 惆悵: 실의에 상심하다

「菊花臺」: 一夜**惆悵** 如此委婉

(은 밤 실의에 상심하니 이처럼 완곡하게)

⇒ 『楚辭』「九辯」: **惆悵**兮, 而私自憐

(슬프구나, 내 스스로를 가없이 여김이)

(11) 魏晉南北朝

① 斷腸: 깊은 그리움에 슬퍼하다

「菊花臺」: 花落人**斷腸** 我心事靜靜躺

(꽃이 지니 그리움에 마음도 슬퍼 내 시름은 조용히 누그러지고)

⇒ 曹丕, 「燕歌行」: 念君客遊思**斷腸**,

(당신이 멀리 떠난 것을 생각하니 그리움에 슬퍼지네)

(12) 唐

① 紅顏: 아름다운 모습

「菊花臺」: 妳鎖眉 哭**紅顏**喚不回

(당신이 찌푸려도 울어도 아름답던 모습은 불러올 수 없으니)

⇒ 李白, 「長幹行二首」: 感此傷妾心, 坐愁**紅顏**老

(이를 느낌에 내 마음 아프고 시름으로 아름답던 모습도 쇠해가요)

② 青史: 역사책<sup>8)</sup>

「菊花臺」: 縱然**青史**已經成灰 我愛不滅

(역사책이 재가 되었다고 해도 내 사랑은 소멸되지 않을테니)

⇒ 岑參, 「輪臺歌奉送封大夫出師西征」: 古來**青史**誰不見

(예부터 전해온 역사책에 누구인지 보지 못했으니)

③ 邀明月: 밝은 달을 부르다

「髮如雪」: **邀明月** 讓回憶皎潔

(밝은 달 불러 기억을 되비추니)

⇒ 李白, 「月下獨酌」: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

8) 고대에는 역사를 죽간에다 기록했던 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류종목 등 2010, p. 229).

(잔을 들고 밝은 달 불러오니 그림자를 대하며 셋을 이루었네)

④ 菊花殘: 국화가 시들다.

「菊花臺」: 菊花殘 滿地傷 你的笑容已泛黃

(국화가 시들어 천지가 상흔이니 당신의 웃음도 빛을 바랬군요)

⇒ 李煜, 「長相思」: 菊花開, 菊花殘. 塞雁高飛人未還,

(국화 피고 국화 다시 지는데. 변방의 기러기 높이 날지만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⑤ 向晚: 해질 무렵

「菊花臺」: 花已向晚 飄落了燦爛

(꽃은 이미 저녁 무렵이 되어 그 찬란함을 가벼이 떨어뜨렸네)

⇒ 張籍, 「猛虎行」: 向晚一身當道食, 山中麋鹿盡無聲

(저녁 되어 홀로 식사하러 가는 길 산 중에는 고라니와 사슴도 아무 소리 없네)

⑥ 凋謝: 쇠하다, 시들다, 노쇠하다

「菊花臺」: 凋謝的世道上 命運不堪

(노쇠한 세상살이에서 운명을 견딜 수 없으니)

⇒ 韓愈, 「寄崔二十六立之」: 朋交日凋謝, 存者逐利移

(친구 간의 사귀는 날로 적어가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점차 장점을 취하며 변해가네)

⑦ 煙雨: 안개비

「青花瓷」: 天青色等煙雨 而我在等妳

(푸른 하늘이 안개비를 기다리듯 나는 당신을 기다려요)

⇒ 杜牧, 「江南春絕句」: 南朝四百八十寺, 多少樓臺煙雨中

(남조 사백 팔십 곳의 절과 수많은 망루가 안개비 속에 있다)

(13) 宋

① 紅塵: 날리는 흙먼지, 속세/인간사

「髮如雪」 紅塵醉 微醺的歲月

(세속에 취하고 술에 취한 세월)

⇒ 陸游, 「鷓鴣天」七之五: 插腳紅塵已是顛, 更求平地上青天

(세속에 발을 디더 뒹굴고 있어도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길 더욱 바라네)

② 月彎彎: 달이 굽다, 굽은 달

「菊花臺」: 慘白的月彎彎 勾住過往

- (창백하게 굵은 달 옛 왕래를 상기시키고)  
 ⇒ 趙彥衛, 『雲麓漫鈔』: 月子彎彎照九州, 幾家歡樂幾家愁  
 (달은 굵어 전국을 비추니 얼마나 많은 집이 즐겁고 또 얼마나 많은 집이 근심에 쌓여있을까)  
 ③ 炊煙: (취사 시 피어오르는) 연기  
 「青花瓷」: 炊煙裊裊昇起 隔江千萬里  
 (밥 짓는 연기 모락모락 강 건너 저 아득하네)  
 ⇒ 黃庭堅, 「武昌松風閣詩」: 野僧早飢不能飮, 曉見寒谿有炊煙  
 (산 중 스님은 일찍부터 굶주려 죽조차 먹을 수 없는데, 새벽녘 추운 골짜기 밥 짓는 연기 나는 게 보이네)

상기 예시들을 보면, 周杰倫 곡에는 비단 현대에 사용되는 어휘들뿐만 아니라 고대 시가에 사용된 어휘들까지도 여럿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곡의 이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류적 관점에서 어휘를 관찰하는 것도 유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그것을 고전 시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시상(詩想)의 관찰로까지 확대시킬 경우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상기 周杰倫 곡 속의 어휘와 고대 시가 속 어휘 간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14) 양자 간 어휘 의미 비교<sup>9)</sup>

伊人:	原 = 現	夜未央:	原 = 現
惆悵:	原 ≈ 現		
斷腸:	原 = 現		
紅顏:	原 = 現	青史:	原 = 現
邀明月:	原 = 現	菊花殘:	原 ≈ 現
向晚:	原 = 現	凋謝:	原 ≈ 現
煙雨:	原 = 現		
紅塵:	原 = 現	月彎彎:	原 ≈ 現
炊煙:	原 = 現		

9) 예(14)에서 ‘原’은 고대 시가 속 어휘 의미를, ‘現’은 周杰倫 곡 속의 어휘 의미를 가리킨다. ‘=’은 의미의 동일함, ‘≈’은 의미의 유사함을 의미한다.

예(13) 외에 고대 시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몇몇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髮如雪”는 「髮如雪」란 곡의 제목이자 곡 속 여인이 가진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직역 시 ‘머리가 눈과 같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때 “如雪”가 “髮”의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가 모호하다. 劉炯朗(2011, p. 134)은 작사가 方文山이 「髮如雪」란 곡에 앞서 “極東之地, 雪域有女, 聲媚, 膚白, 眸似月, 其髮如雪.(극동 땅 설원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아름다운 목소리와 흰 피부, 달빛 눈동자에 머리 빛은 눈과 같았다)”란 문구를 앨범 속에 남겼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髮如雪”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암시를 바탕으로 劉炯朗(2011, p. 134)은 方文山的 “髮如雪”를 李白의 「將進酒」와 연관 짓는다—“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青絲暮成雪(당신은 높은 가옥 밝은 거울 흰 머리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아침엔 청사와 같다가 해질녘엔 눈 빛을 이루는 것을)”. 하지만 「將進酒」는 사실, 여인의 형상화가 아닌, 세월이 무상하니 “세상만사의 근심을 떨치고 좋은 벗과 함께 술 한 잔 마시며 인생의 흥을 즐겨 보자(김원중 2004, p. 160)”하는 호방함을 그린다.

어떠한 접근이든 양자 모두는 “髮(如)雪”로써 세월의 흐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이 같은 생각은 「髮如雪」 전반에 걸쳐 있는 윤회(輪迴) 사상에 연유하는데, 「髮如雪」의 전반에 출현하는 “前世”, “塵埃”, “輪迴”, “愛不滅”, “妳化身的碟” 등 생의 반복과 변화, 유한한 물질과 무한한 정신 등이 “髮如雪”에 맥락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곡 속의 가사 “髮如雪”가 출현하는 “妳髮如雪”란 구절은 ‘형용하기 힘든 당신의 아름다움’ 자체일 수도, ‘그리움에 힘들어 한 결과 변한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한 모습은 그 뒤를 잇는 “淒美了離別(이별을 처량하고 아름답게 한다)”와도 이어질 수 있다.

곡 「菊花臺」에서의 “菊花”는 꽃이 아닐 수 있다. 「菊花臺」는 영화 『滿城盡帶黃金甲』의 O.S.T이다. 그리고 영화 제목인 “滿城盡帶黃金甲”는 黃巢의 「不第後賦菊」란 시 중 “冲天香陣透長安, 滿城盡帶黃金甲(하늘을 찌를 듯 향기는 장안에 가득하고 온 도시는 꽃잎으로 가득하네)”란 구절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黃金甲”는 “국화의 노란 꽃잎을 전사들의 금색 투구와 갑옷에 비유한 것이다(李起敏 등 1999, p. 176)”. 영화(와 곡)는 이 점을 수용하여 전사들의 투구와 갑옷을 국화에 비유한다.<sup>10)</sup> 唐代的 시로

부터 영화 제목이 직접 인용되고 다시 그로부터 곡의 제목이 응용되면서 전사의 투구와 갑옷은 국화로, 국화는 전사의 투구와 갑옷으로 비유된다. 이런 점에서 곡의 제목인 “菊花臺”는 전사가 내려다 볼 수 있는 대(臺) 또는 전사의 연인이 전사가 있는 전장을 내려다보는 대(臺)로 해석이 가능하다.<sup>11)</sup>

이 같은 이해는 뒤를 잇는 “菊花殘”의 해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12) ④의 李煜 시에서는 “菊花殘”이 “菊花開”와 맺구를 이루며 “塞雁高飛人未還”을 맥락삼아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만 「菊花臺」속 “菊花殘”은 그 뒤를 잇는 가사—“滿地傷 你的笑容已泛黃”—와 연관지어 보았을 때 전사의 죽음을 상기시킨다. 형식의 차용, 의미의 응용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상기 논의를 정리하면, 분석대상에는 첫째, 고대 시가와 맥을 같이 하는 어휘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휘의 사용에 있어 고전 시가와 의미를 같이 하는 것, 그와 유사한 것 등 다양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다. 셋째, 그 결과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평소 듣는 음악 속에서 현대와 고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 3. 문화적 측면: 어휘의 사용을 중심으로

앞선 논의를 통해 본고는 周杰倫의 곡이 교육의 보조자료로서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곡 자체는 문화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곡에 쓰인 악기를 통해 또는 해당 민족 특유의 음악적 정서를 통해 문화가 드러난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 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음악을 전공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정서라면 해당 민족의 대중들 조차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10) 「菊花臺」의 MTV를 참고하면 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11) 이 같은 해석은 『滿城盡帶黃金甲』이란 영화명이 왜 한국어로 수입되면서 『황후花』란 이름으로 개봉되었는지 이해의 맥락을 제공한다.

그런데 곡 속의 한 자 한 자는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곳곳에 출현하는 어휘들로부터 그것이 곡의 의미 전달에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제공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아래는 「上海一九四三」과 「青花瓷」를 중심으로 그 속에 출현하는 문화관련 어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5) 예술: 書

- ① 漢隸: 예서  
「青花瓷」在瓶底書漢隸 仿前朝的飄逸
- ② 楷書: 해서  
「上海一九四三」在我沒回去過的老家米缸 爺爺用楷書寫一個滿
- ③ 宋體: 송체  
「青花瓷」臨摹宋體落款時 卻愜記著妳
- ④ 落款: 낙관  
「青花瓷」臨摹宋體落款時 卻愜記著妳

(16) 예술: 畫

- ① 仕女圖: 미인도  
「青花瓷」釉色渲染仕女圖 韻味被私藏
- ② 山水畫: 산수화  
「青花瓷」在潑墨山水畫裡 妳從墨色深處被隱去

예(15)~(16)을 보면 周杰倫 곡에는, 앞 절에서 본 詩와 더불어, 書, 畫와 관련한 용어들도 다수 출현한다.<sup>12)</sup> 書와 관련해서는 隸變이라고 할 만큼

12) 최종세(2002, 머리말)는 시, 서, 화의 관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 문화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시와 서예와 회화 부분은 중국 특유의 표의 문자(表意文字)인 한문(漢文)과, 역시 특유의 필기도구인 붓과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실로 독특하고 고상한 예술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집권계층들은 관리를 임용하거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곧잘 이 분야에 대해 얼마만한 조예가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때문에 중국의 식자층들은 시(詩)·서(書)·화(畫) 세 분야를 항상 한데 연관하여 논하였으며 이를 연마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기울이는 것을 매우 가치 있고 풍류로운 일로 여겼다. 이러한 풍조는 평민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고 영향을 미쳤으니, 세 분야에 모두 능통한 이를 ‘삼절(三絕)’이라 하여 깊은 존경심을 드

큰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한자가 정형화되기 시작한 “隸(書)”도 출현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楷書”도 출현한다. 나아가, 비록 본고의 고찰 대상은 아니나 「蘭亭序」란 곡에서의 “行書(蘭亭臨帖 行書如行雲流水)”까지 부가할 경우 書에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 서체를 논할 수 있다. 이는 서사 체계란 관점에서의 논의에도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青花瓷」의 “臨摹宋體落款時 卻愜記著妳”에는 현재까지 인쇄체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宋體”와 작품을 마치며 제작자명 등을 적는 “落款”, 그리고 체본(體本)을 옮긴다는 의미의 “臨摹”도 출현한다.<sup>13)</sup>

다음으로 畫를 보자. “仕女圖”는 “仕女” 자체만으로도 ‘미인도’로 풀이가 된다.<sup>14)</sup> 『Wikiwand』에는 “仕女畫”라는 표제어로 검색이 가능한데, 그에 따르면, 중국 전통 회화 중의 하나로서 원래는 사대부나 귀족 집안의 여인을 소재로 한 인물화를 가리키던 말이었으나 지칭대상이 변화하면서 미인도를 가리키게 되었다.<sup>15)</sup>

#### (17) 예술: 瓷

- ① 青花瓷: 청화자기
- ② 素胚(초벌구이 한 백자기): 素胚勾勒出青花 筆鋒濃轉淡
- ③ 瓶身(자기 몸체): 瓶身描繪的牡丹 一如妳初妝
- ④ 釉色(유약의 색): 釉色渲染仕女圖 韻味被私藏
- ⑤ 瓶底(자기 바닥): 在瓶底書漢隸 仿前朝的飄逸
- ⑥ 窯燒(자기 가마): 妳隱藏在窯燒裡 千年的秘密

러내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회화예술을 논할 때는 그 특징으로서 “그림 속에 시가 있(畫中有詩)”고 “서와 화는 한 몸(書畫同體)”이란 점 등이 대두된다(김태만 등 2011, pp. 213~214).

13) 부연하면, “송체”는 당대 구양순(歐陽詢) 부자의 서체를 토대로 하며 송대 활자 인쇄가 발명되면서 현재까지 통용되어 온 주요 인쇄체를 가리킨다(陳廷祐 2003[최지선 2008, p. 28]). 또한 “낙관(落款)”은 저작자의 성명, 장소, 일시 등을 쓰거나 도장으로써 찍는 일을 가리키는데(김태만 등 2011, p. 215), 비단 서·화 등에 국한하지 않고 상기 「青花瓷」의 예처럼 도자기 등의 실물 작품에도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③指以美女為題材的中國畫。也作仕女。”『現代漢語詞典』(2012, p. 1186).

15) 『Wikiwand』,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곡의 주제가 어떤 한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대상과 관련한 여러 용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青花瓷」는, 비록 사랑을 노래하는 곡임에도, 제목 자체가 “青花瓷”라는 하나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내보이는 곡으로서 가사 곳곳에 그와 관련된 용어가 출현한다. 상기 예(17)의 “素胚”, “瓶身”, “釉色”, “瓶底”, “窯燒”가 그에 해당한다. “青花瓷”는 자구에서부터 유추가 가능하듯, 하얀 “素胚”에 푸른색 꽃을 그린 데서 이름이 연유하는데, 그 시작은 꽃에서부터 시작했어도 원대로 들어 오면서 점차 주제와 장식기법 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적 특징을 드러내는 채색자기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方李莉 2005[구선심 2008, pp. 83~84]). 그리고 이 같은 점은 「青花瓷」가 2009년도 “北京大學/清華大學 招生筆試考題” 등 중국의 중요 시험문제에 출제되는 계기가 된다.

(18) 2009년도 “北京大學/清華大學 招生筆試考題”<sup>16)</sup>

有道問題, 周杰倫『青花瓷』的歌詞‘素胚勾勒出青花筆鋒濃轉淡, 瓶身描繪的牡丹一如妳初妝……’有什麼語法錯誤。

상기 예로부터 우리는,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을 통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사(史)적 토대를 둔 가사도 젊은이들 층에서 흡수, 유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유사한 예는 아래에서도 볼 수 있다.

(19) 상징

① 牡丹: 모란

「青花瓷」瓶身描繪的**牡丹** 一如妳初妝

② 錦鯉: 비단잉어

「青花瓷」色白花青的**錦鯉** 躍然於碗底

③ 春聯: 춘련

「上海一九四三」泛黃的**春聯** 還殘留在牆上 依稀可見幾個字歲歲平安

④ 滿: 쌀독에 붙이는 상징 문자

「上海一九四三」在我沒回去過的老家米缸 爺爺用楷書寫一個**滿**

16) 『廣州市語言文字網』.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 ⑤ 吳儂軟語: 오방언의 특징

「上海一九四三」說著一口吳儂軟語的姑娘 緩緩走過外灘

“牡丹”은 예부터 “花后”, “國色天香”이란 별칭으로 불려온 것에서 알 수 있듯, 부귀와 행복 등을 상징하며 국화(國花)의 반열까지 오른 꽃이다(常敬宇 1995, p. 126). 또한 그로 인해 고대 시가 속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왔다.<sup>17)</sup>

“牡丹”에 이어 「青花瓷」에는 “錦鯉”가 출현한다. “鯉”는 뛰어난 환경 적응력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일상과 함께해 온 어종으로서 특히 “錦鯉”는 색의 화려함으로 인해 관상용으로 애호된 동물이다.<sup>18)</sup> 현대에도 “鯉”는 중국인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年畫 등에서 빈번히 출현하는데, 魚가 餘뿐만 아니라 玉와도 해음 관계를 갖고 鯉가 리와도 해음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常敬宇 1995, pp. 79~80).

중국의 새해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年畫 외에 “春聯”과 “(倒)福” 등이 있다. 모두 기복(祈福)의 행위로 소급될 수 있는데, 「上海一九四三」에도 “滿”자와 관련한 기복 행위가 출현한다. 쌀독에 “滿”자를 붙여 놓음으로써 풍족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중국인들의 바람을 엿볼 수 있는데, “一九四三” 당시라면 지금보다 더 한 바람을 “滿”자에 담았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해는 지역적으로 吳方言 지역에 속한다. 방언을 크게 북방방언과 남방방언으로 나눌 경우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북방의 말은 큰 성량으로 거칠지만 남방의 말은 조곤조곤하고 부드럽다는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중에는 吳方言에 대한 “吳儂軟語”처럼 하나의 성어(成語)로 굳어진 경우도 있다. ‘우아함’, ‘부드러움’, ‘고아함’ 등을 특징으로 하며 예로부터 누려온 물질적 안정 등의 요인이 지역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陸文夫 2005).<sup>19)</sup>

17)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의 『全唐詩』에서 “牡丹”으로 검색을 하면 제목을 포함하여 총 246례가 보인다.

18) 『wikiwand』.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19) 陸文夫, 『北京晨報』(2005.3.16)(『雅虎奇摩知識』에서 재인용). 사이트 주소 「참고문헌」에 표기.

지역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건축과 관련한 말에도 나타난다.

(21) 건축

① 弄堂: 농당(상해 특유의 건축양식)

「上海一九四三」老街坊 小弄堂 是屬於那年代白牆黑瓦的淡淡的憂傷

『上海話大詞典』(2007, p. 91)에서는 “弄堂”을 “19세기 말 상하이 조계지에서 대량으로 지어진 주거지구에 중·서 질층식으로 늘어선 주택 사이로 나있는 좁은 길”로서 “하나의 弄堂은 하나의 건물군(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sup>20)</sup> 상하이 “弄堂”건축의 대표적인(上海特色) 양식으로서 『上海話大詞典』(2007, p. 91)은 “石庫門房子”를 예로 드는데, 그에 따르면, “石庫門房子”란 “石庫門”을 공동현관으로 하고 (“弄堂”을 중심으로)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어울려 있는 가옥구조를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弄堂”이란 상해의 건축양식과 “石庫門房子” 내 가옥들의 자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22)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22) 건축

「上海一九四三」黃金葛爬滿了雕花的門窗，夕陽斜斜映在斑駁的磚牆，鋪著檫木板的屋內還瀾漫

예(22)의 “磚牆(벽돌 벽)”과 “檫木板(느티나무 바닥)”의 사용은 단순히 아무렇게나 인용된 건축자재의 언급이 아니다. 바로 앞서 “石庫門房子”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弄堂”이란 건축양식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자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사 속 “磚牆”과 “檫木板”에 대한 이해가 “弄堂”에 대한 이해에 바탕해야 함을 뜻한다. 같은 이치로, 그에 앞서 출현하는 “雕花的門窗” 역시 남방지역 특유의 건축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花窗”에 대해 『中國建築圖解詞典』(2007, p. 132)은 “花木鳥獸”를 새겨

20) 王建輝 등(2004, p. 494)에 따르면 “弄堂”은 원래 “弄唐”이었다. “弄”은 궁 내의 길, “唐”은 종묘 내의 길, 각각 가리켰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두 자가 합쳐지고 “弄唐”과 “弄堂”으로 변화해왔다고 한다.

넣은 창으로서 주로 강남의 민가와 원림(園林)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上海一九四三」이란 곡에서의 “門窗”에 왜 “雕花”란 수식어가 등장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분석대상에는 첫째, 특정 대상이나 남·북방 지역, 시기 등을 주제로 할 경우 그와 관련된 다수의 문화 관련 어휘들이 출현한다. 둘째, “青花瓷”와 관련한 “素胚”, “瓶身”, “釉色” 등의 제시처럼, 곡 속의 어휘들은 핵심 주제를 상위 범주로 한 상호 연결된 하위 범주의 어휘 배치를 보인다. 셋째, 문화 관련 어휘는 특히 언어 맥락과 더불어 書, 畫, 상징 등 언외 맥락을 함께 바탕에 두었을 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 IV. 결론과 함축

지금까지 본고는 대중문화 소재가 중국어·문·문화 교육의 보조자료 다양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周杰倫의 10곡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는 크게 교육과 세 가지 측면의 연계성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각운, 고대 시가 어휘, 문화 관련 어휘의 사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周杰倫의 곡이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어교육의 보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아가 대중가요란 대중문화 소재가 여러 방면에 걸쳐 중국어교육의 보조자료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중가요를 중국어·문·문화 교육의 주교재로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과 부정, 회의 등으로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그 같은 분분함은 교수자 자신이 어학, 문학, 문화 중 무엇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세부 분야를 수업내용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것이다. 하지만 周杰倫의 곡을 일례로 한 고찰 결과를 보면 대중가요도 중국어 교육의 여러 측면에 걸쳐 보조 자료 중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중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명 인물의 곡을 잠깐 접하게 하자라든지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잠깐 ‘쉬어가는 페

이지' 정도로 소개하자라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다. 주교재의 여러 예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관점과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함축한다. 우선, 현지에서 대중가요를 향유하는 층과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층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을까 하는 흥미에 생각을 닿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은 과거, 그것의 출발점을 상기와 같은 동기의 부여보다는 언어 학습 자체에 초점을 맞췄던 兒歌 등의 도입 및 응용과 대별될 수 있다. 둘째, 상기 논의를 통해 보았듯,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언어적 측면에서는 운의 사용, 문학적 측면에서는 고대 시가를, 문화적 측면에서는 언외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는 언어학습을 위해 가사 자체에만 국한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관점을 탈피한다. 분석의 관점과 이용 방법에 따라, 회화 수업이나 강독 수업 등 언어 수업에서의 단순 보조자료로부터 벗어나 어학이나 문학, 문화 등 관련 심화 수업에서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보조자료로 그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의 실천을 위해서는 학습에 유용한 대중가요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차후 논의들은 본고의 초보적 논의를 시발점 삼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김원중 역해(2004), 『당시』, 서울: 을유문화사.
- 김태만·김창경·박노종·안승웅 저(2011),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서울: 다락원.
- 김학주(1998), 『중국문학사』(수정판), 서울: 신아사.
- 方李莉 저, 구선심 역(2008), 『도자기』, 서울: 대가[方李莉(2005), Chinese Ceramics, 五洲傳播出版社].
- 陳廷祐 저, 최지선 역(2008), 『서예』, 서울: 대가[陳廷祐(2003), Chinese Calligraphy, 五洲傳播出版社].
- 최중세 엮음(2002), 『중국 시·서·화 풍류담』, 서울: 책이 있는 마을.
- 편자 미상, 심영환 역(2005), 『시경』, 서울: 홍익출판사.
- 형당퇴사(衡塘退士) 편, 류종목·주기평·이지운 역(2010), 『당시삼백수』 1, 서울: 소명출판.
- 常敬宇 編著(1995), 『漢語詞彙與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黃壽祺, 梅桐生 譯注(1984), 『楚辭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 李起敏, 白嵐玲 選注(1999), 『歷朝花鳥咏物詩』, 北京: 華夏出版社.
- 劉炯朗(2011), 『國文課沒教的事』, 臺北: 時報文化[“Google Play 도서”판].
- 錢乃榮, 許寶華, 湯珍珠 編著(2007), 『上海話大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商務印書館編輯部(1979), 『辭源(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 王建輝, 易學金 主編(2004), 『中國文化知識精華』,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王力(2002), 『詩詞格律十講』, 北京: 商務印書館.
- 王其鈞 主編(2007), 『中國建築圖解詞典』, 北京: 機械工業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2012),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漢典』: <http://www.zdic.net>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zh>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讀古詩詞網』: <http://fanti.dugushici.com>

『Wikiwand』 <http://www.wikiwand.com/>

『Wikiwand』 검색어: 각주3-1) zh/周杰倫; 각주3-2) en/List\_of\_songs\_recorded\_by\_Jay\_Chou; 각주15) zh/仕女畫; 각주18) zh/錦鯉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找歌譜』: <http://www.zhaogepu.com/>

### [각주 자료 출처]

각주2) 시험문제: [臺灣2011國立台東高中歷史科試卷]

[https://www.google.co.nz/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837Py4\\_zNAhVCjpQKHbDGDfQQFggaMAA&url=http%3A%2F%2Fwww.pttsh.ttct.edu.tw%2Fschool%2Fdata%2Fpaper%2F201111161624381.doc&usg=AFQjCNHS5Xgp\\_flNuR2og8T7MCLW9XiZnw&bvm=bv.127178174,d.dGo](https://www.google.co.nz/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837Py4_zNAhVCjpQKHbDGDfQQFggaMAA&url=http%3A%2F%2Fwww.pttsh.ttct.edu.tw%2Fschool%2Fdata%2Fpaper%2F201111161624381.doc&usg=AFQjCNHS5Xgp_flNuR2og8T7MCLW9XiZnw&bvm=bv.127178174,d.dGo)

각주4)

(4-1) 蝸牛: [臺灣中國時報電子報(2014.6.15.)]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40615002569-260404>

(4-2) 愛在西元前: [臺灣2011國立台東高中歷史科試卷] - 상기 각주2) 출처와 동일

(4-3) 上海一九四三:[TVBS新聞(2009.4.21.)]

<http://news.tvbs.com.tw/news/detail/general/127965>

(4-4) 東風破, 七里香, 髮如雪: [中日通信社]

<http://long-net.com/>

(4-5) 聽媽媽的話: [聯合報(2006.11.3., “新浪博客”재인용)]

[http://blog.sina.com.cn/s/blog\\_40743717010006rr.html](http://blog.sina.com.cn/s/blog_40743717010006rr.html)

(4-6) 菊花臺 :[Amazon]

[https://www.amazon.co.jp/歌って覚える中国語-別冊聴く中国語-株式会社日中通信社/dp/B007GKJXPK/ref=sr\\_1\\_3?ie=UTF8&qid=1467436399&sr=8-3&keywords=歌で覚える中国語](https://www.amazon.co.jp/歌って覚える中国語-別冊聴く中国語-株式会社日中通信社/dp/B007GKJXPK/ref=sr_1_3?ie=UTF8&qid=1467436399&sr=8-3&keywords=歌で覚える中国語)

(4-7) 青花瓷: [廣州市語言文字網] - 하기 각주16) 출처와 동일

(4-8) 琴傷: [中國時報(2012.9.7., “雅虎奇摩新聞”재인용)]

<https://tw.news.yahoo.com/周董-琴傷-入選大陸中學教材-213000184.html>

각주5) 『蘋果日報(2009.4.21.)』

<http://www.appledaily.com.tw/appledaily/article/headline/20090421/31564504/>

각주6) 『找歌譜』

<http://www.zhaogepu.com/search?wd=上海1943>

각주16) 『廣州市語言文字網』

<http://yw.gzjkw.net/show.asp?id=614>

각주19) 『雅虎奇摩知識』

<https://tw.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50907000013KK13239>

❖ ABSTRACT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the Ancillary  
Materials for Chinese Education:  
Focusing on Some Songs of *Jay Chou*

Park, Chan-Wo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Chinese popular culture, especially music, can contribute to diversification of the ancillary materials for teaching Chinese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some songs of *Jay Chou*.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10 songs that have been used in the tests or the text contents in China or Taiwan in terms of rhyme, words relation to the ancient poems, and the Chinese culture. Consequently, the songs of *Jay Chou* show that they can be used as an ancillary material in the Chinese class from the linguistic, literary, and cultural angles. For use in the Chinese language, literature, culture class in the future, there is a constant need to discover and analyse new materials from the Chinese popular culture.

Key Words : ancillary material, songs of *Jay Chou*, Chinese popular culture,  
Chinese education, diversification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